『中國學』第66輯 (2019.03)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9.66.66.14
pp.249-267 ISSN : 1229-9618

寒山詩의 주요 이미지에 관한 고찰*

정원호**

【목 차】

1. 들어가며
2. 긍정적 이미지
1) 白雲
2) 寒山
3. 부정적 이미지
1) 動物
2) 酒肉
4. 나오며

【초록】

‘寒山’ 혹은 ‘寒山子’라고 알려진 인물의 詩集인 『寒山詩』에는 유가와 도가의 경향도 일부 나타나지만, 전체를 불교적 색채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한산이 시를 창작하기 위해 사용한 이미지를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았다.

그의 시에서 긍정적 이미지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는 ‘흰 구름[白雲]’과 ‘한산[寒山]’이다. ‘흰 구름’에는 첩첩 산중에 홀로 은거하며 거친 자연의 변화 속에서 화자의 벗이 됨과 동시에 세상을 자유로이 살아가고자 시인의 내면세계가 투영되어 있다. ‘한산[寒山]’은 시인이 은거하며 생활하던 장소로서의 한산과 인간으로서의 한산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시인이 이상향을 위해 정진하던 때의 한산이라는 배경은 고난과 역경의 도량으로 나타나지만, 깨달음에 도달하고 난 이후 한산이라는 배경은 이상적이고 청정한 아름다운 도량의 긍정적 이미지로 다가왔다.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는 ‘動物’과 ‘酒肉’이다. 동물 중에서는 특히 ‘돼지’와 ‘개’의 이미지가 부정의 이미지로 동원되었다. 돼지는 탐욕과 거짓의 이미지, 개는 성냄과 애욕의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술은 일시적인 쾌락을 위한 인간의 부정적인 욕망의 이미지, 고기는 탐욕스런 인간의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 한산의 수양을 통한 변화하는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 이미지는 한산의 시를 입체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확장되어 시적 의미를 보다 구체화 시켜주는데 일조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寒山, 佛敎, 白雲, 動物, 酒肉

* 이 논문은 2018년도 동의과학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의과학대학교 관광중국어전공 부교수 (whjung@dit.ac.kr)

1. 들어가며

寒山의 성명은 고증할 길이 없으며, 집안 역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집안이 상층 관료 집안은 아니며, 중하층 계급의 관리 집안으로 경제는 비교적 부유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1] 그의 생활연대는 대략 唐나라 武則天시기부터 德宗 貞元년간으로 백세 가량 수를 누린 것으로 전해진다. 長安人이며 삼십 세 이후 天台山 寒岩으로 들어가 약 70여 년 간 그곳에서 은거하며 지냈다. 그곳에서 國淸寺 승려인 豐干, 拾得 등과 교유하며 시를 창작하였다.[2] 그의 작품 성향은 어릴 적부터 익혀온 유가적 훈도의 영향과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은둔해 들어간 이후의 도가적 영향이 일부 배어있다.[3] 그러나 그의 시 삼백여 편은 거의 종교라고 할 만한 강한 불교적 색채가 상당부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4]

이미지는 인간의 삶을 위해 필수적인 매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미지와 인간의 삶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미지로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에 속하는 만큼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삶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5] 한편의 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시인은 가슴 속에 무수히 많은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 그 중 어떤 이미지들은 시인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리고, 남은 이미지들은 서로 적당한 조합을 이루어 결국에는 시인이 표출하고자 하는 주제에 알맞은 작품으로 탄생된다. 그러한 이미지는 시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효과가 있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구체화시켜서 표현해주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고찰은 시인의 내면에 드리우고 있는 사고의 방향성을 가늠케 해주는 동시에 시인의 삶의 지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산이 불교적 경향의 시를 창작하기 위해 어떠한 시적 이미지를 사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대개 시인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과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의 두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寒山詩』에 사용된 주요 이미지를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중국의 崔小敬이 그의 박사논문에서 한산시의 物象과 心象에 관해서 다룬 바가 있다. 그는 여기에서 한산에 대해 물리적 공간, 생활공간, 깨달음의 공간의 세 부류로 구분해 놓고 각 부류에 속하는 한산시의 종류를 한데 묶어 평을 가하였다.[6] 국내에는

---

1) 何善蒙, 『隱逸詩人-寒山傳』, 浙江人民出版社, 2006, pp.14-15 참조.
2) 陳耀東, 『寒山詩集板本研究』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07, p.11 참조. 拙稿, 「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 과정 고찰」, 『中國學』, 제63집, p.124 에도 관련 내용이 일부 실려 있음.
3) 拙稿, 「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 과정 고찰」, p.124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음.
4) 寒山詩의 序詩에 해당하는 첫 시편에 "무릇 나의 시를 읽는 사람들이여, 모름지기 마음속 淸淨함을 유지하라.……악한 業을 몰아내어 없애고, 佛法에 귀의하여 眞性을 받으라. 오늘날 부처의 몸 받기를, 律令을 받드는 것처럼 신속히 하라.(凡讀我詩者, 心中須護淨.……驅遣除惡業, 歸依受眞性. 今日得佛身, 急急如律令." 「寒山詩-001」)라고 하여 스스로 佛者의 길을 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124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음.
5) 김현강, 『이미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p.19.

이선희가 「한산시에 나타난 한산의 의미」에서 『寒山詩』중에 보이는 寒山의 意象에 대해 유사한 시편들을 한데 묶어놓고 寒山의 표면적 경관 묘사와 한산의 禪的 경계에 대해 묘사하였다.[7] 필자가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寒山'은 자연물인 '寒山'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이 됨과 동시에 이상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수양의 길이다. 그러므로 '寒山'의 이미지 변화를 통해 인간 한산의 심리적 변화에 따른 수양의 단계를 고찰해 보고자 함이다. 즉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긍정적 대상과 부정적 대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 한산의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본고의 寒山詩 原文은 이전에 발표한 필자의 한산시 졸고와 마찬가지로 四庫全書 全唐詩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寒山詩 전체가 無題詩이므로 논지 전개의 편의상 四庫全書 全唐詩本 卷806에 실려있는 寒山詩 수록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서 詩를 구분지었음을 밝혀둔다.[8]

2. 긍정적 이미지

『寒山詩』는 여느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시적 이미지의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자연계에서도 따오기도 하고, 인간계에서 따오기도 한다. 혹은 유정물과 무정물의 세계에서 빌려오기도 한다. 그들 중에는 한산이라는 시인의 여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긍정적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긍정적 이미지 가운데에서도 그 영향력이 가장 큰 두 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白雲

『寒山詩』에서 '구름[雲]'이라는 용어가 출현하는 곳은 모두 55회이다. 구름 가운데는 '푸른 구름[靑雲], '누런 구름[黃雲]', '검은 구름[黑雲]' 등의 색상으로 표현된 구름이 있는가 하면, 또 '외로운 구름[孤雲]', '조각 구름[片雲]', '가는 구름[行雲]' 등의 시인의 감성이 더해진 구름도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름은 '흰 구름[白雲]'이다. '白雲'은 작품 속에 모두 22회 등장한다. 여기서는 시인이 '흰 구름'이라는 무정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重巖我卜居 첩첩 바위 산 바로 내가 사는 곳
> 鳥道絶人跡 새들 만의 길이라 사람 자취 끊어져 있네.
> 庭際何所有 뜰 가에는 무엇이 있나

---

6) 崔小敬, 『寒山及其詩硏究』, 中國 復旦大學校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112-116 참조.
7) 이선희, 「한산에 나타난 한산의 의미」, 『中語中文學』 제14집, 1992.
8) 이 세 줄 내용은 이전 졸고인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125와 「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 p.125 에 언급한 내용과 같음을 밝히는 바이다.

白雲抱幽石 흰 구름만이 그윽한 돌을 안고 있네.
住玆凡幾年 여기에서 몇 해나 흘렀나?
屢見春冬易 봄 여름이 거듭 바뀌어 갔네.
……9)

화자가 거처하는 곳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첩첩 바위산중이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철저히 차단하고 자연 속에서 자기만의 고독을 즐기고 있다. 산중 그의 뜰에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을 떠도는 흰 구름뿐이다. 이 구름은 돌을 감싸고 있다. 화자는 이 돌에 "幽"자를 써서 자신의 현실과의 거리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간이 멈추어 있을 것 같은 산중 공간에 떠다니는 흰 구름의 존재는 그에게 봄 여름이 거듭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새들만이 다닐 수 있는 화자의 뜰 주변 자연물 가운데에서도 흰 구름은 화자의 산속 동반자이다.10)

登陟寒山道, 한산의 길을 올라가는데,
寒山路不窮. 한산의 길은 끝이 없도다.
谿長石磊磊, 긴 골짜기엔 바윗돌 쌓여있고
澗闊草濛濛. 너른 시냇가엔 풀이 무성하네.
苔滑非關雨, 이끼 미끄러움 비 온 탓 아니며,
松鳴不假風. 소나무 우는 것 바람 탓 아니라네.
誰能超世累, 누가 속세의 번거로움 벗어나서,
共坐白雲中. 함께 흰 구름 속에 앉을 수 있으려나.11)

시적화자가 도달하려고 하는 곳은 寒山이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 바윗돌 첩첩히 쌓여있는 긴 골짜기도 거쳐야하고, 풀이 무성한 시냇가도 화자를 기다리고 있다. 날씨는 설상가상으로 비를 뿌리고 바람이 불어, 바위를 밟으면 물에 젖은 이끼 탓에 걷기 힘들고 소나무 울음은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힘든 여정을 거치면서도 화자의 마음속에 품은 이상향은 寒山에 가면 쉴 수 있는 흰 구름[白雲]이다. 寒山의 시에서 구름[雲]은 종종 나타난다. 한산은 무정물인 구름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놓았다. "내 사는 곳은 은둔하기 좋으려니, 거처에 세속의 먼지잡음 없다네. 풀을 밟다보니 오솔길 되고, 구름을 바라다보니 이웃이 되었다네."12) 인간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거처를 정해놓고 주변의 자연을 벗으로 하였다. 특히 구름은 화자가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이웃으로 변모한다. 그 가운데서도 흰 구름의 존재는 삶의 번다함이 사라진 脫俗的인 이상향으로 그려진다.

---

9) 「寒山詩-002」.
10) 李白은 그의 시「蜀道難」에서 山勢의 험함을 새들도 원숭이도 넘어가지 못하는 산이며, 손만 뻗으면 하늘의 별도 잡힐듯한 산으로 묘사하였다. : "황학이 날아도 넘어가지 못하며, 원숭이들이 건너려고 하여도 잡고 오르는 것을 근심하네.…… 삼성을 어루만지고 정성을 지나며 우러러 한숨 쉬고, 손으로 가슴 어루만지며 앉아서 길게 탄식하노라.(黃鶴之飛尙不得, 猿猱欲度愁攀援.…… 捫參曆井仰脅息, 以手撫膺坐長嘆.)"『李太白全集-卷之三』, 北京:中華書局, 1995, pp.162-163.
11) 「寒山詩-028」: 拙稿,「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128 필자 역문.
12) 吾家好隱淪, 居處絶囂塵. 踐草成三徑, 瞻雲作四隣.「寒山詩-004」: 拙稿,「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 p.128 필자 역문.

可重是寒山, 귀하도다, 이 한산이여!
白雲常自閑. 흰 구름 늘 절로 한가롭구나.
猿啼暢道內, 원숭이 울음 도량 내에 들려오고,
虎嘯出人間. 호랑이 울부짖음 인간세계를 벗어났네.
獨步石可履, 홀로 걷노라니 돌은 밟을 만하고,
孤吟藤好攀. 외로이 읊조리나니 등나무 더위잡기 좋구나.
……[13]

시적화자는 자신이 마련한 산속 도량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곳은 신비한 원숭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정신을 번쩍 깨우는 호랑이의 포효소리가 천지를 가득 채워서 인간들의 범접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그 도량을 홀로 거닐다보면 주변의 돌길은 어느새 발길에 익숙해져 가고, 등나무 줄기 잡고 오르며 홀로 읊조리며 자신만의 도를 즐기고 있다. 흰 구름은 그러한 화자의 주변을 한가로이 벗해주고 있다. "華山의 꼭대기에 올라 한가로이 노니는데, 날 밝아 한낮이 눈부시네. 사방을 둘러보니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은 학과 더불어 날아가고 있네."[14] 환한 대낮 산 정상에서 속세의 번잡함 벗어놓고 한가로운 여유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시야에 흰 구름이 들어온다. 구름은 학과 짝을 지어 창공을 유유하게 떠다닌다. 화자는 흰 구름에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내면의 이상세계를 투영시키고 있다. 어느 경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세계가 담겨있다.

時人尋雲路, 요즘 사람들 구름길 찾고 있건만,
雲路沓無蹤. 구름길 아득하여 자취 없다네.
山高多險峻, 산 높고 매우 험준하며,
澗闊少玲瓏. 계곡물 넓으나 영롱하지 않다네.
碧嶂前兼後, 푸른 산은 앞과 뒤로 둘러있고,
白雲西復東. 흰 구름은 서로 갔다 동으로 갔다한다네.
欲知雲路處, 구름 가는 길 알고자 하는가?
雲路在虛空. 구름길은 저 허공에 있다네.[15]

시의 전편에 걸쳐 '구름길[雲路]'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다. 삶의 여정에서 힘겨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에 자신의 이상향을 실어본다. 구름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유혹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지만 속세에서 바라보는 구름은 변화무쌍하기 그지없다. 잠깐 다른 생각에 빠져있다 다시 고개 들면 구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시적화자가 거하는 곳은 산세가 무척 높고 가파르며 주변에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다. 계곡에 물길은 비록 넓지만 그렇다고 매혹적인 물빛은 아니다. 여기서의 구름은 인간들에게 혹은 유토피아적 이상향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

13) 「寒山詩-165」.
14) 閑遊華頂上, 日朗晝光輝. 四顧晴空裏, 白雲同鶴飛. 「寒山詩-166」.
15) 「寒山詩-257」.

처없어 보이는 허공의 구름은 세속의 눈으로는 가는 길을 알 수 없다. 오직 그러한 욕망을 멀리하고 깊은 산속에 진실된 자아와 대화하고 노래하는 화자의 눈에만 볼 수 있는 구름의 길이며, 그 구름은 흰 구름이다.

浩浩黃河水, 넓고 넓은 황하의 물이여,
東流長不息. 동으로 길이 흘러 쉬지 않는구나.
悠悠不見淸, 아득히 흘러도 맑아지지 않는데,
人人壽有極. 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네.
苟欲乘白雲, 진실로 흰 구름 타고자 할지나,
曷由生羽翼. 무엇으로 날개를 돋게 하려나.
唯當鬢髮時, 오직 머리털 검을 즈음에,
行住須努力. 가나서나 모름지기 노력을 기울여라.[16]

중국의 서쪽 靑海省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황하는 예로부터 천년에 한번 맑아진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맑아지기 어렵다.[17] 황하와 같은 이러한 유구한 자연에 비해 인간의 수명은 불과 백년을 넘기기 어렵다.[18] 이러한 제한된 수명을 가진 인간이 그 욕망은 끝이 없다. 세속에서의 온갖 욕망의 장벽 앞에 쉬이 무너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탈속적인 신선의 유토피아적 세계를 꿈꾸기도 한다. 이 세계로 들어서게 하는 방편이 화자가 가리키는 흰 구름이다. 그러나 새처럼 날개도 없는 인간이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을 어떻게 탈 수 있나. 시의 말미에 시적화자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오직 조금이라도 젊은 시절에 속된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실한 자아를 찾는 공부에 매진하며, 그러한 공부만이 흰 구름 너머 탈속적 이상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2) 寒山

『寒山詩』에서 '寒山'이라는 용어가 출현하는 곳은 모두 38회이다. 이를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한 부류는 寒山子가 은거하며 생활하던 곳을 가리킨다. 이 의미로 쓰인 곳은 모두 28회이다. 또 한 부류는 인간으로서의 한산 혹은 佛道를 추구하는 수행자로서의 한산을 가리킨다. 이 의미로 쓰인 곳은 모두 10회 이다.[19] 그러나 일부 시에서는 사람과 장

16) 「寒山詩-064」.
17) 『左傳』「魯襄公」8년 "楚나라의 子囊이 鄭나라를 치고 鄭나라가 蔡나라를 침공한 일을 응징했다. 당시 鄭나라에서는 子駟와 子國,子耳 등 초나라에 복종하려는 측과 子孔과 子展, 子蟜 등 晉나라의 구원을 기다리자는 측으로 의견이 갈라섰다. 그 때 초나라에 복종하려는 측의 子駟가 말했다. "「周詩[실전된 詩]」에 이르기를, 황하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자니,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점복을 실로 무수히 치니 스스로 그물을 만드는 것과 같소."라고 하였다.("楚子囊伐鄭, 討其侵蔡也. 子駟,子國,子耳欲從楚. 子孔,子蟜,子展欲待晉. 子駟曰,「周詩」有之曰 '俟河之淸,人壽幾何?兆云詢多,職競作羅.'") : 楊伯峻編著, 『春秋左傳注(修訂本)三』, 北京:中華書局, 1995. p.957. 좌구명 지음, 신동준 옮김, 『춘추좌전3』, 한길사, 2006, p.174 번역 참조.
18) "인간의 삶은 백년도 못 채우면서, 늘 천년의 근심 품고 사네. ……(人生不滿百, 常懷千載憂)" 「寒山詩-135」.
19) 賀莉, 「唐詩中的'寒山'意象」, 『西安文理學院學報』, 期刊1, 2015, p.41. 참조.

소 두 의미가 한데 복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인간 '寒山'과 은거수행 장소로서의 '寒山'이 갖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한산이 추구하며 나아간 길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可笑寒山路 우습도다! 한산의 길이여.
而無車馬蹤 수레와 말의 자취없구나.
聯溪難記曲 시내는 얼마나 굽었는지 알기 어렵고
疊嶂不知重 첩첩 봉우리는 몇 구비인지 모를세라.
泣露千般草 이슬 온갖 풀 위에 눈물 뿌리고
吟風一樣松 바람 한 소나무에 불어오네.
此時迷徑處 이에 길을 잃어버린 곳에서
形問影何從 육신은 그림자에게 묻는다 어디로 가느냐고.[20]

시에서 묘사된 '寒山'의 이미지는 우선적으로 '寒山'이 처한 지리적 물리적 형상에 대해 그리고 있다. 당시 인간들의 보편적인 이동 도구인 수레와 말은 감히 접근하기 어렵다. 시내는 굽이굽이 흐르고 험한 봉우리는 첩첩히 에워싸서 몇 구비인지 알 수가 없다. 산세가 높고 험준하니 이슬방울은 온 대지의 풀을 적시고 바람은 소나무를 에워 감싸며 불어온다. '寒山'으로 가는 길이 험하다 보니 도중에 길을 놓쳐버린다. 그리고는 화자는 자신에게 묻는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고. 시의 전편에서 묘사된 '寒山'의 이미지를 종합해보면 표면적으로 '寒山'의 물리적 위치인 것 같은데, 내재적 의미는 스스로 자신에게 던지는 인간 한산이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한산이 추구하는 길은 일반 인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길이며, 그 과정은 온갖 고난의 역경을 거쳐 가야하는 길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寒山'은 그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실현할 수 있는 물리적 상징적 도량이기도 한 것이다.

'寒山'에 대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구절은 곳곳에 보인다.[21] 한산의 척박한 환경에 대해 묘사한 다른 한편을 보기로 하자.

杳杳寒山道, 아득하고도 먼 한산 길이여,
落落冷澗濱. 쓸쓸하고도 찬 시냇가로다.
啾啾常有鳥, 짹짹거리는 새는 늘 있는데,
寂寂更無人. 적적하니 사람은 더욱 없네.
淅淅風吹面, 쏴쏴하는 바람 얼굴에 스치고,
紛紛雪積身. 펄펄 내리는 눈 몸에 쌓이네.
朝朝不見日, 아침마다 해를 보지 못하고,
歲歲不知春. 해마다 봄을 모른다네.[22]

---

20) 「寒山詩-003」: 한산의 이 시편에서 제2구는 陶淵明의 「飮酒-其五」제2구와 흡사하며[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마지막 구는 陶淵明의 「形影神」에서 그 모티브를 취한 듯하다. 宋丘龍著, 『陶淵明詩說』, 臺北:文史哲出版社, 1984, p.67. p.174.

21) 한산의 길을 올라가는데, 한산의 길은 끝이 없도다. 긴 골짜기엔 바윗돌 쌓여있고, 너른 시냇가엔 풀이 무성하네.…… (登陟寒山道, 寒山路不窮。谿長石磊磊, 澗闊草濛濛。……) 「寒山詩-028」: 상기 인용시.

22) 「寒山詩-031」.

시적화자가 묘사하는 한산으로 나아가는 길은 늘 아득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다. 한산의 도중에 굽이 흐르는 시내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차갑게 흘러만 간다. 인적은 드문데 새 울음 소리는 늘 들려오니 적막감은 깊어만 간다. 깊은 산중이라 얼굴을 스치는 바람소리 세차고, 눈은 내 몸을 덮어 버린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가 여기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알려주는 봄이 한산에는 찾아오지 않는 듯하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매서운 눈보라가 일상사인 극한 환경 속에 세월의 흐름마저 단절된 것 같은 도량이 바로 이곳 한산이다. 시의 서두에 묘사한 '아득하고도 먼 한산의 길'이란 이러한 물리적 환경 이외에 고난과 역경을 거쳐 가야 하는 자신의 수행 길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상기 두 편을 제외하고도 한산에 대한 묘사에서 화자가 공통으로 들고 있는 자연환경은 이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다.

碧澗泉水淸, 푸른 시내에 샘물은 맑고,
寒山月華白. 한산의 달빛은 희도다.
默知神自明, 적적한 깨달음에 정신은 절로 밝아지고,
觀空境逾寂 공(空)을 관함에 경계는 더욱 고요해지네.[23]

상기 언급된 한산의 계곡을 흐르는 시내가 쓸쓸하고도 차가우면서도 몇 구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풍경으로 묘사된 반면, 이 시편에서 한산을 흐르는 시내는 푸른빛에 그 샘물은 맑고 투명하다. 게다가 한산을 비추고 있는 달빛은 희기만 하다. 지금까지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거친 환경으로 묘사된 한산이 이 시편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거센 눈보라와 비바람에 햇빛마저 들지 않는 척박한 한산에서 시간을 잊은 채 자신을 관조하던 화자에게 한산이란 장소는 어느덧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화로 다가온다. 그의 내적 경계가 고요한 깨달음에 이르니 정신이 저절로 밝아지며, 허공을 관조하니 자신을 둘러싼 한산의 외적 경계가 척박함은 사라지고 고요하면서도 아름다운 도량으로 다가온다.

세월도 흐름도 잊어버린 화자에게 백년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일반인의 평범한 물리적 시간의 단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寒山'은 그에게 영원에 가까운 수 만년의 시간을 제공해 준다.

粤自居寒山, 한산에 은거한 지,
曾經幾萬載。일찍 몇 만 년이 흘렀던가.
任運遯林泉, 운명에 맡겨 숲과 샘으로 은둔하여,
棲遲觀自在。한가로이 쉬며 자유자재함을 관조하네.
……
細草作臥褥, 가는 풀로 요를 삼고,
靑天爲被蓋。푸른 하늘로 덮개 만든다네.
快活枕石頭, 시원스레 돌베개 베고 누워,
天地任變改。천지의 변화에 맡겨둔다네.[24]

---

23) 「寒山詩-081」.
24) 「寒山詩-164」: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 p.136. 필자 역문.

이와 같은 상징적인 기나긴 세월의 흐름 동안 운명과 천지의 조화로움에 몸을 맡긴 화자에게 '寒山'의 풀밭은 요가 되고 하늘은 이불이 되며, 돌은 베개가 된다. 이로써 한산은 자신의 내적 경계가 추구하려는 이상향에 가까워지니 '寒山'에 펼쳐진 자연경계가 훌륭한 보금자리로 변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한산이 도달한 이러한 내면의 경계를 일반인의 식견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다.

> 多少天台人, 천태산의 많은 사람들,
> 不識寒山子. 한산자(寒山子)를 몰라본다네.
> 莫知眞意度, 참된 그 뜻은 알지 못하고,
> 喚作閑言語. 부질없는 말만 한다고 외친다네.[25]

이 시편에서 나온 寒山에는 뒤에 '子'가 붙어있어 인간 '寒山'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천태산 깊은 곳에 은거한 한산이지만 오가다 만나는 산중의 사람들은 한산이 던지는 말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며,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한산이 던지는 말은 소리없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다. 도리어 한산의 시에 대해 道理가 없다고 따져 묻기까지 한다.[26] 그러나 천태산 험한 곳에서 오랜 세월[27] 수양하며 자신의 이상향을 위해 정진한 한산에게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비난은 아무런 책망거리가 되지 못한다. 도리어 "한산자(寒山子)는 늘 이와 같도다. 홀로 스스로 거하며,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28]라고 하며, 스스로의 경계가 삶과 죽음을 초월한 듯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한산이 마련한 '寒山'이라는 淸淨도량에는 앞서 언급한 '白雲' 외에 '달[月]', '소나무[松]', '바위[巖]', '새소리[鳥語]', '꽃[櫻桃][楊柳]', '아침 해[旭日]'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들이 도량의 곳곳을 한산과 함께 하고 있다.[29]

---

25) 「寒山詩-181」.

26) "어떤 사람 한산자(寒山子)에게 책문하네, 그대의 시에는 道理가 없다고.(客難寒山子, 君詩無道理)" 「寒山詩-187」.

27) "한산에 한번 들어가 앉아, 어느덧 삼십년을 머물렀네.(一向寒山坐, 淹留三十年.)" 「寒山詩-049」.

28) "寒山子, 長如是. 獨自居, 不生死." 「寒山詩-311」.

29) "푸른 시내 샘물은 맑고, 한산의 달빛은 희도다. 적적한 깨달음에 정신은 절로 밝아지고, 空을 관함에 경계는 더욱 고요해진다.(碧澗泉水淸, 寒山月華白. 默知神自明, 觀空境愈寂.)" 「寒山詩-081」 : 註 23) 필자 번역 재인용.

"……깊은 시내엔 늘 좔좔 물 흘러가고, 높은 소나무에는 쏴쏴 바람이 불어온다. 그 가운데 반나절 앉아 있노라면, 백년의 근심을 잊어버린다네.(……幽澗常瀝瀝, 高松風颼颼. 其中半日坐, 忘却百年愁)." 「寒山詩-022」.

"집은 푸른 바위 아래 있는데, 뜰은 거칠어 풀이 나도 베지를 않네. 새로 올라온 등 넝쿨 늘어져 휘감고 있고, 묵은 돌은 깎아지른 듯 서있네.(家住綠巖下, 庭蕪更不芟. 新藤垂繚繞, 古石豎巉巖.……)" 「寒山詩-016」.

"새소리에 정을 못 이기나니, 이러한 때 초암에 누워있노라. 앵두는 붉게 빛나고, 버들은 한창 길게 드리워 있다네.……(鳥語情不堪, 其時臥草庵. 櫻桃紅爍爍, 楊柳正氂氂.……)" 「寒山詩-130」.

"아침 해는 푸른 산을 머금고, 갠 구름은 초록빛 못을 씻는다네. 누가 알리오! 속세 벗어나, 한산 남쪽으로 말을 몰고 올라올 줄을.(……旭日銜靑嶂, 晴雲洗綠潭. 誰知出塵俗, 馭上寒山南.)" 「寒山詩-130」.

3. 부정적 이미지

한산은 序詩에 해당하는 첫 시편에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淸淨함을 유지하고 惡業을 몰아내라고 하였다.[30] 청정한 단계는 들어서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는 더욱 힘든 엄격한 자기 수양을 필요로 한다. '寒山'이라는 수양의 도량에서 흰 구름을 벗하며 세월의 흐름을 잊은 채 청정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한산의 시야에 정 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속의 사람들의 행태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기 마련이다. 본장에서는 한산이 시에서 어떠한 부정적 이미지를 내세워 자신의 안타까움을 극대화 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자신의 시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한산이 설파하려고 만들어 놓은 삶의 정화장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動物

豬喫死人肉, 돼지는 죽은 사람의 살을 먹고,
人喫死豬腸. 사람은 죽은 돼지의 창자를 먹네.
豬不嫌人臭, 돼지는 사람 냄새를 싫어하지 않고,
人返道豬香. 사람은 도리어 돼지 냄새 향기롭다고 하네.
豬死抛水內, 돼지가 죽으면 물속에 던져버리고,
人死掘土藏. 사람이 죽으면 흙속에 파묻는다네.
彼此莫相噉, 피차간에 서로 먹지 않으면,
蓮花生沸湯. 연꽃이 끓는 물에서 피어나리.[31]

시편 전체가 사람과 돼지의 이분법 구조로 되어있다. 여기서 흥미를 끄는 것은 시적화자의 보는 시각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철저하게 인간과 돼지가 수평적 구조로 나열되어 있다. 먼저 먹는[喫] 행위에 대해 인간과 돼지가 서로의 살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상호 대립적 부정적 의미가 부각되어 보인다. 그러나 사람과 돼지가 서로의 냄새를 싫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도리어 그 냄새를 향기로워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대립의 각도를 바로 잡아보려는 시적화자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즉 두 생명체 모두 죽고 나면 각각 물과 흙속으로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의 세계에 대해 굳이 인간 우위의 세상으로 구분지어 놓지 않고 있다. 시의 말미에서 '인간과 돼지 서로 먹지 않으면'이라는 대목에서까지 철저하게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서로 먹고 먹히는 대립적 각도가 풀어지고 나면 펄펄 끓는 물에서도 연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佛法의 조화로움의 세계로 독자들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산이 바라보는 돼지의 이미지는 사람과 대립하여 서로 먹고 먹히는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30) 註4)에 소개되어 있음.
31) 「寒山詩-070」.

世有一等愚,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茫茫恰似驢. 멍청하기가 마치 나귀와 같네.
還解人言語, 사람 말을 그래도 알아들으면서,
貪淫狀若猪. 색을 탐하는 모습이 돼지와 같네.
險巇難可測, 음험하기가 헤아리기 어렵고,
實語却成虛. 진실된 말은 도리어 거짓으로 변한다네.
誰能共伊語, 누가 그와 더불어 말을 말할 수 있으리오,
令敎莫此居. 차라리 이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32]

화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를 두 마리 동물에 비유하고 있다. 어리석음의 표상으로 먼저 나귀[驢]를 들고 있다. 그런데 나귀에 대해서는 '멍청하다'는 비유에 그치고 있는 반면, 돼지는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즉 그 사람이 나귀처럼 멍청하기는 해도 사람들 말은 알아듣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색을 탐하는 모습이 마치 돼지와 같다고 하였다. 『左傳』에서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돼지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 "탐욕이 끝이 없고, 무례하기 그지없다"라고 하였다.[33] 화자도 이 사람의 색을 탐하는 모습을 일컬어 돼지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음험하기 그지없고 하는 말은 모두 거짓으로 변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와 더불어 말을 섞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라'라는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즉 이 시편에서 등장하는 돼지는 탐욕의 상징이며, 이는 白雲이 감도는 이상향의 청정도량인 '寒山'과는 대척점에 위치하는 부정적 이미지의 상징이다.

이밖에도 돼지는 좋아함과 미워함도 모르며, 스스로 자기 허물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34]

赫赫誰盧瓦肆, 눈 부시도다! 누구의 술집인가,
其酒甚濃厚. 그 술은 매우 진하고도 맛나다네.
可憐高幡幟, 사랑스럽구나! 높이 휘날리는 깃발,
極目平升斗. 자세히 보아도 되와 말술 공정하다네.
何意訝不售, 그런데 어찌하여 술이 팔리지 않나,
其家多猛狗. 그 집에 사나운 개가 많기 때문일세.
童子欲來沽, 동자가 술 사러 왔다가,
狗齩便是走.개가 물려 하니 이내 달아나버린다네.[35]

외관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주점 깃발 높이 펄럭이는 주막이 시편의 서두에 등장한다. 더군

32) 「寒山詩-075」.
33) 순임금의 악정(樂正)후기(后夔)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백봉을 낳았다. 그[伯封]는 실로 돼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탐욕이 끝이 없고, 무례하기 그지없었다. 이에 사람들이 그를 큰 돼지(封豕)라고 불렀다.(樂正后夔取之, 生伯封, 實有豕心, 貪惏無厭, 忿類無期, 謂之封豕.) 『左傳』「昭公」25년. 좌구명 지음, 신동준 옮김, 『춘추좌전3』, p.318-p.320 번역 참조.
34)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도 전혀 모르니, 마치 돼지와 양 같구나. ……스스로 자기 허물을 볼 줄 모르나니, 우리에 누워있는 돼지 같구나. (……好惡總不識, 猶如猪及羊. ……不自見己過, 如猪在圈臥.)" 「寒山詩-235」.
35) 「寒山詩-117」.

다나 그 주막에서 파는 술은 농도도 진하고 맛나며, 주인장은 양심을 어기지 않아 술의 양을 아주 공정하게 달아 팔고 있다. 술이 잘 팔릴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다 구비하였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손님들이 방문을 꺼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집에 사나운 개가 많기 때문이라고 시적화자는 말하고 있다. 개의 사나운 성질이 손님들의 출입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시의 내용은 『韓非子』「外儲說右上」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는 나라에 道를 지닌 선비들이 政見을 펼쳐 군주의 정치를 밝게 하고자 하나, 나라의 대신들이 사나운 개처럼 달려들고 물어뜯어 군주가 선비들을 기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36] 자신의 사리사욕 챙기기에만 눈이 멀어 자신의 나라마저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의 심성을 사나운 개에 비유한 것이다. 주변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인간의 그릇된 심성을 화자는 '사나운 개'의 이미지에 투영시켜 놓은 것이다.

我見百十狗, 내 백 마리 넘는 개들 보니,
箇箇毛髯鬖. 일일이 털이 헝클어져 있네.
臥者渠自臥, 눕는 놈은 스스로 누워있고,
行者渠自行. 다니는 놈은 스스로 다니고 있네.
投之一塊骨, 놈들에게 뼈다귀 하나 던져주니,
相與嗟喋爭. 서로 물어뜯어 가며 싸운다네.
良由爲骨少, 진실로 뼈다귀는 적고,
狗多分不平. 개는 많으니 공평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이라.[37]

시편 전체가 개를 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등장하는 개는 수 백 마리가 넘는데 하나같이 외양이 다듬어져 있지 않다. 주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버려진 개 일 수도 있다. 하는 행동도 일사불란하지 않다. 제각각이다. 그러는 중에 살점발린 뼈다귀 하나 던져지면 서로들 물어뜯어가며 필사적으로 쟁취하려 한다. 시적화자는 시의 말미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는 단지 개체 수는 많고 먹이는 적어서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 시의 제3구에서 제6구까지의 내용은 『戰國策』「秦策篇」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강대국인 秦나라에게 대항하려 주변국들이 합종책으로 연합하자, 秦나라에서 재물을 미끼로 각 나라들을 유혹하니 각 나라의 책사들은 서로 이견을 보이며 그 합종은 깨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38]

---

36) "송나라 사람 중에 술 파는 이가 있었는데, 술을 정확하게 재어 팔고, 손님에게 성심껏 대하였다. 그 술도 아주 맛있었으며, 깃발도 높이 매달았다. 그러나 팔리지 않아 술이 시어버렸다. 그 이유를 궁금해하였다. 마을의 장자인 양천어른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양천이 '당신의 개가 사납소?'하고 물었다. '개가 사나우면 왜 술이 팔리지 않소?'라고 주인이 물었다. 양천이 말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혹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어 술병을 들고 술을 사러가게 하면, 개가 달려들어 물어버린다. 이것이 술이 시어지고 팔리지 않는 이유라네. (宋人有沽酒者, 升概甚乎, 遇客甚謹, 爲酒甚美, 懸幟甚高著, 然不售, 酒酸. 怪其故, 問其所知閭長者楊倩, 倩曰, 汝狗猛邪? 曰, 狗猛則酒何故而不售? 曰, 人畏焉. 或令孺子懷錢挈壺甕而往酤, 而狗迓而齒亢之, 此酒所以酸而不售也.)" 項楚, 『寒山詩注』, 北京: 中華書局, 2000, pp.309-310. 원문 재인용, 필자 역.

37) 「寒山詩-058」.

38) "천하의 책사들이 조나라에 모여 합종책으로 진나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진나라의 재상 응후가 이르기를, 왕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를 물리쳐 버리십시오. 진나라는 천하의 책사에게 원한을 사지 않았습니다. 서로 모여 진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부귀를 위해서 일 뿐입니다. 왕께서는

시적화자는 적은 먹이에 많은 굶주린 개들의 필사적인 다툼의 본능을 인간들에게 비유하고 있다.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쉽게 일그러질 수 있는 인간들의 나약한 내면적인 심성과 자신들만의 삶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조차 쉽게 경시해버릴 수 있는 인간의 부정적인 단면을 '개'의 이미지를 통해 투영시키고 있다.

이 밖에 한산의 다른 시편에서 개는 성냄의 상징뿐만 아니라,[39] 愛慾에 물든 인간의 욕망에 비유되어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해탈의 경지에 들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사용되기도 하였다.[40]

이처럼 돼지와 개 등의 짐승의 이미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통한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욕망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종국에는 인간들이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깨고 해탈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시적화자의 바램이 투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외 한산의 詩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동원된 여러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거북이를 쏘아버린 전갈[蠆],[41] 탐욕스런 사람을 비유하는데 동원된 어미 잡아먹는 올빼미[梟],[42] 사자의 위세를 빌려 거짓으로 왕 행세를 하는 여우[狐],[43] 貪瞋痴의 三毒에 비유된 뱀[虵],[44] 재물을 탐하고 음욕을 즐기는 사람을 비유하는데 동원된 승냥이[豺狼][45] 등이 대표적이다.

2) 酒肉

술은 중국 문학작품에서 예로부터 인간 삶의 喜怒哀樂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 작가 개인의 내면적 심성의 발로가 술과 어우러져서 수많은 문학작품이 탄생되어 왔다. 한산에게 술은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오는가? 또한 술과 함께 등장하는 '고기[肉]'는 한산의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살펴보도록 하자.

왕의 개들을 보십시오. 누워있는 놈은 누워있고, 일어서 있는 놈은 일어서 있고, 걸어가는 놈은 걸어가고, 머무는 놈은 머물러 있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뼈다귀 하나를 던지면 서로 이빨을 드러내고 싸웁니다. 왜 그렇겠습까? 다투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天下之士, 合從相聚於趙, 而欲攻秦. 秦相應侯曰, 王勿憂也, 請令廢之. 秦於天下之士, 非有怨也, 相聚而攻秦者, 以己欲富貴耳. 王見大王之狗, 臥者臥, 起者起, 行者行, 止者止, 毋相與鬪者, 投之一骨, 輕起相牙者, 何則, 有爭意也.)" 項楚, 『寒山詩注』, pp.158-159. 원문 재인용, 필자 역.

39) "성내는 것은 집안의 개와 같네.(瞋忿似家狗)" 「寒山詩-152」.

40)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당시 사람들 모두 돌아보고는, 어리석은 애욕에 마음이 물들었다네. ……개가 마른 뼈다귀를 씹으며, 헛되이 제 입술과 이빨을 핥는 것 같았다. ……애초부터 개의 마음 갖고 있어, 해탈의 경지에 들지 못하나니.(……逢見一羣女, 端正容貌美. ……時人皆顧眄, 痴愛染心意. ……狗齩枯骨頭, 虛自舐脣齒. ……無始有狗心, 不超解脫地.)" 「寒山詩-170」.

41) 「寒山詩-034」.

42) 「寒山詩-086」.

43) 「寒山詩-118」.

44) 「寒山詩-226」.

45) 「寒山詩-235」.

有酒相招飮, 술이 있으면 서로 불러 마시고,
有肉相呼喫. 고기 있으면 서로 불러 먹네.
黃泉前後人, 앞서거니 뒤서거니 황천으로 갈 사람들,
小壯須努力. 젊을 때 모름지기 힘써 노력하라.
玉帶暫時華, 옥대도 잠시의 영화요,
金釵非久飾. 금비녀도 오랜 장식 되지 못하나니.
張翁與鄭婆, 장씨 노인과 정가 노파도,
一去無消息. 한번 가더니 소식 없더라.[46]

중국의 많은 고전시에서 '술[酒]'은 시인의 마음의 벗이 되어 작품 속에 등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의 술은 '고기[肉]'와 함께 시적화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행위가 시적화자의 인식에는 이성을 놓아버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욕망의 덩어리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쾌락에 몸을 맡겨버리는 사람들의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승세계인 황천이다. 생전에 온갖 부귀를 누리던 사람들도 한번 이 세상을 떠나가면 영영 소식이 없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 젊은 시절 마음의 정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적화자의 메시지에 '술과 고기'는 강한 부정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城北仲家翁, 성 북쪽의 중씨 노인,
渠家酒肉多. 그 집엔 술과 고기 많다네.
仲翁婦死時, 중씨 노인 아내 죽었을 때,
吊客滿堂屋. 조문객이 집에 가득하였네.
仲翁自身亡, 중씨 노인 자신이 죽으니,
能無一人哭. 한 사람도 울어주는 이 없네.
喫他盃臠者, 남의 술과 고기 먹던 사람들,
何太冷心腹. 어찌 그리도 심장이 차가운가.[47]

한 집에 술과 고기가 많다는 것은 富를 의미한다. 시편에 등장하는 중씨 노인도 생전에 집에 술과 고기 차려놓고 사람들과 자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노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조문하러 온 객들이 가득하였는데, 정작 중씨 노인 자신이 죽자 조문객이 거의 없다. 이에 시적화자는 탄식한다. 남의 술과 고기 즐겨 먹던 사람들의 인심이 지극히 냉랭하다고. 시적화자에게 술과 고기는 순간적인 여흥을 즐기는 수단에 불과할 뿐, 인간의 순수한 심적 교류에는 정신을 흐리고 육신을 탁하게 하는 매개물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술과 고기'에 대한 시적화자의 엄중한 부정적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自有慳惜人, 몹시 인색한 사람 있어,
我非慳惜輩. 스스로는 인색한 무리 아니라 하네.
衣單爲舞穿, 단벌옷은 춤추느라 헤지고,

46) 「寒山詩-053」.
47) 「寒山詩-140」.

酒盡緣歌啐. 술이 다하면 노랫소리로 재촉하네.
當取一腹胞, 한번 배부르면 그만인걸,
莫令兩脚儽. 두 다리 피곤하게 하지마라.
蓬蒿鑽髑髏, 쑥이 해골 뚫고 나오면,
此日君應悔 그 때 그대는 반드시 후회하리라.[48]

본인은 재물을 아끼며 탐하는 인색한 무리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는 이가 있다. 단벌옷은 춤가락에 헤지고 술은 다 떨어지면 노래로 추임새 넣어가며 또다시 재촉하기를 반복한다. 이에 시적화자는 메시지를 던진다. 한차례의 여흥에 만족하며, 쾌락으로 육신을 피로하게 하지 말라고. 시의 말미에서는 자신의 해골이 쑥대밭을 뒹굴 때에서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물에 대한 탐심도 없고, 출세에 대한 욕망도 없이 단벌옷에 그저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인생을 잘 즐기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화자는 끊임없는 자기수양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술로 백년도 살지 못하는 아까운 삶을 허비하며 보내지 말라고.[49] 자연과 더불어 맑은 정신으로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이러한 메시지는 죽고 난 뒤에도 땅을 치며 후회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메시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我見凡愚人, 내 세속의 어리석은 사람들 보니,
多蓄資財穀. 재물과 곡식 많이 쌓아두고 있네.
飮酒食生命,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謂言我富足. 나는 풍족하다고 말하네.
莫知地獄深, 지옥 깊은 줄 알지 못하고,
唯求上天福. 오직 천상의 복만 구한다네.
罪業如毗富, 죄업이 비부라산 같은데,
豈得免灾毒. 어찌 가혹한 형벌 면하리오.
……
不如早覺悟, 일찍 깨달음 얻어,
莫作黑暗獄. 캄캄한 지옥으로 갈 죄 짓지 않는 것만 못하리니.
狂風不動樹, 미친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心眞無罪福. 마음이 참되면 죄와 복이 없나니.
……[50]

화자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에서 재물과 곡식을 많이 축적해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축적된 富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다닌다. 그러면서도 死後에 지옥은 고사하고 도리어 천상세계의 온갖 복락이 자신들에게 찾아오길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술'은 불교 경전 곳곳에서 부정적인 것으

48) 「寒山詩-142」.
49) "사람의 삶은 백년도 못 채우면서, 늘 천년의 근심 품고 사네. ……(人生不滿百, 常懷千載憂)" 「寒山詩-135」 : 상기 註)17에 소개. / "인생은 일백년, 부처님 말씀은 십이 부.……(人生一百年, 佛說十二部)" 「寒山詩-152」.
50) 「寒山詩-233」.

로 묘사되어 있다. ‘여러 악업을 짓는 근본’, ‘중생을 번뇌에 빠뜨림’, ‘신체의 여러 기능을 쇠약하게 만듦’, ‘심신과 가정을 파괴함’ 등등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51] 그리고 술과 함께 ‘고기’에 대해 화자는 시편에서 ‘生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불교에서 일컫는 생명체를 가진 중생을 일컫는 말이다.[52] 즉 화자는 굳이 ‘魚肉’이라는 상용적 표현을 쓰지 않고 ‘생명(生命)’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고기를 먹는 행위’가 ‘생명을 먹는 행위’와 같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신의 몸을 살리려고, 남의 목숨 앗는”[53] 이러한 죄업은 캄캄한 지옥의 가혹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죄와 복의 현상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참된 마음을 닦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외 다른 시편에서 ‘고기[肉]’는 姓이 ‘오만(傲慢)’이요 이름이 ‘탐욕(貪)’이란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대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54] 어리석은 마음으로 늘 불평에 가득찬 사람이 오직 먹을 줄 아는 것은 ‘고깃덩이[大臠]’로 표현되기도 하며,[55] 서로 번갈아 잡아먹는 어리석고 미련한 고깃덩이[肉團]‘로 표현되기도 하였다.[56]

4. 나오며

이상으로 『寒山詩』에 나타난 주요 이미지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寒山詩』에서 표현된 ‘寒山’은 자연물 그대로 작가에게 공간적 배경이 됨과 동시에 이상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생수양의 길이 되어 주었다. 자신의 수양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한산의 모습 또한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옴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산을 둘러싼 여러 자연경물은 인간 한산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다가와 주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흰 구름[白雲]‘은 시간의 흐름이 멈추어 버린 듯한 첩첩 바위 산중에 화자의 동반자로 함께 하였다[寒山詩-002], 긴 골짜기 풀이 무성한 시냇가를 거쳐 비 뿌리고 바람 불며 물에 젖은 이끼로 가득한 바위를 지나가야 하는 힘든 여정 속에서 흰 구름은 한산에게 삶의 탈속적 이상향으로 다가왔으며[寒山詩-028]. 어느 경계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세계가 창공을 나는 학과 함께 흰 구름에 투영되어 있다[寒山詩-166]. 흰 구름이 가는 길은 세속의 유혹에 빠져있는 인간의 눈에는 변화무쌍하기 짝이 없어 정처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세속적 욕망을 멀리하고 깊은 산속에서 진실한 자아와

---

51) 『涅槃經』『成實論』『四分律』『沙彌戒經』 등의 경전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項楚, 『寒山詩注』, p.594.

52) 상동.

53) “어찌 구태여 남의 목숨 죽이어, 장차 너의 몸 살리려고 하는가.(何須殺他命, 將來活汝己)” 「寒山詩-095」.

54) “한 사내가 있어 성은 오만이요, 이름은 탐, 자는 염치없음. ……고기를 먹음에 더욱 물리지 않다네.(有漢姓傲慢, 名貪字不廉. ……食肉更無厭.)” 「寒山詩-076」.

55) “어리석은 마음으로 언제나 불평이며, ……오직 큰 고깃덩이 먹을 줄만 알고, 이 외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네.(癡心常憤憤, ……唯知打大臠, 除此百無能.)” 「寒山詩-138」.

56) “큰 바다 물 끝이 없고, 물고기와 용 한없이 많네. 서로 번갈아 잡아먹는, 몽매하고 어리석은 고깃덩이들. ……(大海水無邊, 魚龍萬萬千. 遞互相食噉, 兀兀痴肉團. ……)” 「寒山詩-228」.

대화하고 노래하는 화자의 눈에만 볼 수 있는 구름의 길이다[寒山詩-257]. 인간의 제한된 수명 앞에서 젊은 시절 진실한 자아에로의 끊임없는 내적 추구만이 날개도 없는 인간이 흰 구름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로[寒山詩-064], 작가 한산에게는 인생수양의 동반자이면서도 긍정적 이미지의 자연물인 것이다.

『寒山詩』에서 '寒山'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한산 혹은 佛道를 추구하는 수행자로서의 한산을 가리키며, 또 다른 하나는 寒山子가 은거하며 생활하던 장소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과 장소의 두 의미가 한데 복합된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산이 수양하던 도량으로서의 '한산'은 화자의 수양척도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기도 하였다. 우선 한산이 세속을 등지고 온갖 역경을 거쳐 가야 할 때의 한산은 산세 높고 험준하며 첩첩히 에워싼 험한 봉우리에 비바람이 소나무를 감싸고 불어오는 고난의 장소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寒山詩-003]. 사람들의 발길은 닿지 않고 깊은 산중 얼굴을 스치는 거센 눈보라에, 해도 보이지 않고 봄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다[寒山詩-031]. 그러나 어느 순간 한산은 푸른 시내에 맑은 샘물이 흐르고 하얀 달빛이 비추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화자의 내적 경계가 고요한 깨달음에 이르니 정신은 절로 밝아지고, 그를 둘러싼 한산의 경관은 아름다운 도량으로 다가온다[寒山詩-081]. 한산에서 멈추어 버린 세월의 흔적은 화자에게는 몇 만년에 가까운 시간적 단위로 다가온다. 긴 세월의 흐름동안 천지의 조화로움에 몸을 의탁한 화자에게 한산이라는 도량은 화자의 이상향으로 다가온다[寒山詩-164]. 그러나 오가는 사람들은 한산이 던지는 말의 참된 의미는 알지 못하고, 도리어 시에 道理가 없다고 책망한다[寒山詩-187]. 그러나 천태산 험한 곳에서 오랜 기간 수양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듯한 한산에게[寒山詩-311] '흰 구름'이 감싸고 도는 '한산'은 이상적인 淸淨도량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독자들의 가슴으로 다가옴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한산의 시야에 비치는 세속적 사람들의 수많은 행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왔다. 한산은 이에 대해 그들의 행태를 동물에 빗대기도 하고 그들이 즐겨하는 술과 고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교훈적 자세로 임하기도 하였다.

동물 가운데에서는 '돼지'와 '개'가 주된 부정적 이미지로 동원되었다. 먼저 돼지는 사람과 대립하여 서로 먹고 먹히는 부정적인 이미지 이며[寒山詩-070], 색을 탐하며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에 대해 그 모습이 돼지와 같아서 이 땅에서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빗대었다[寒山詩-075]. 개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며 주변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릇된 심성을 지닌 부정적인 인간의 이미지 이며[寒山詩-117], 나약한 내면적인 심성과 타인의 생명조차 경시해 버릴 수 있는 부정적인 인간의 이미지에 동원되기도 하였다[寒山詩-058]. 그 밖에 개는 애욕에 물든 인간의 욕망에 비유되어 사람들이 이로 인해 화자가 추구하는 해탈의 경지에 들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사용되기도 하였다[寒山詩-170].

그 외 한산의 시에는 전갈[蠆], 올빼미[梟], 여우[狐], 뱀[虵], 승냥이[豺狼] 등이 부정적 이미지의 동물로 비유되었다.

한산의 시에서 술은 이성을 놓아버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부정적인 욕망의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다[寒山詩-053]. 한산은 그들에게 해골이 쑥대밭을 뒹굴 때에서

야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寒山詩-142]. 그러나 사람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생전에 축적된 富로 술과 고기를 즐겨하며 죽고 난 뒤에서도 천상의 복락이 자신에게 찾아오길 바라는 어리석은 존재이다. 이에 대해 한산은 술과 함께 인간들이 즐겨먹는 고기는 인간과는 또 다른 생명체라고 시에서 적시하고 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까지 먹는 부정적인 행위의 대상의 대상적 이미지로 '고기[肉][生命]'를 내세웠다[寒山詩-233]. 즉 고기는 '고기[肉]'는 탐욕에 찬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는 대상이며, 어리석고 불평에 가득찬 사람이 즐겨하는 것[寒山詩-138]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동원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서는 한산이 자신의 길로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 가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여운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산의 시에 쓰인 주된 이미지의 고찰을 통해 인간 한산의 수양을 통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 이미지는 지금껏 바라보던 한산시에 대한 단편적 공간적 관념에서 입체적 공간으로서의 시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아울러 한산시에서의 언어적 이미지의 수사법을 통해 물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추구고자 하는 그의 세계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57]

【참고문헌】

陳耀東,『寒山詩集板本研究』, 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07.
何善蒙,『隱逸詩人――寒山傳』, 浙江人民出版社, 2006.
宋丘龍 著,『陶淵明詩說』, 臺北:文史哲出版社, 1984.
楊伯峻 編著,『春秋左傳注(修訂本)三』, 北京:中華書局, 1995.
李　白,『李太白全集-卷之三』, 北京:中華書局, 1995.
項　楚,『寒山詩注』, 北京:中華書局, 2000.
김현강,『이미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유평근·진형준,『이미지』, 살림, 2015.
좌구명 지음, 신동준 옮김,『춘추좌전3』, 한길사, 2006.
崔小敬,『寒山及其詩研究』, 中國復旦大學校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賀　莉,「唐詩中的'寒山'意象」,『西安文理學院學報』, 期刊1, 2015.
이선희,「한산에 나타난 한산의 의미」,『中語中文學』 제14집, 1992.
정원호,「寒山詩에 나타난 求道의 과정 고찰」,『中國學』, 제52집, 2015.
_____,「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中國學』, 제63집, 2018.

57) 유평근·진형준,『이미지』, 살림, 2015, p.47. 언어적 이미지에 관한 내용 참조.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寒山詩, 佛敎, 白雲, 寒山, 動物, 酒肉
	영문	Hansan Poems, Buddhism, White Cloud, Hansan, Animals, Wine and Meat

A study on Key Images of Poems by Hansan

Jung, Won-Ho

This study examines key images contained in 'Hansan Poems,' a book of poetry written by a poet named Hansan during Tang Dynasty.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ime, Tang Dynasty, the poet Hansan displayed some tendencies of Confucianism and Taoism within his poems. But in overall, his works were heavily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creative images of his works based on two different directions: positiveness and negativeness. First, a number of positive images were unveiled. The most notable images from them are 'white cloud' and 'Hansan'. 'White cloud' was a friend to the poet who retreated deep into the mountains and lived alone. At the same time, the inner world of the poet who wanted to lead a free life may be projected through white clouds. 'Hansan' was a place of trials and hardships that the poet had to endure while pursuing Taoism. But after enlightenment was attained, 'Hansan' emerged with positive images which are ideal yet beautiful and pure generosity. On the other hand, various negative images also made their presence in his poems. Most conspicuous images were 'animals' and 'wine and meat'. From animals, images of 'pig' and 'dog' were employed in a negative way. 'Pigs' offer images of greed and lie while 'dogs' render images of anger and 'love and lust'. Wine represent an image of negative desire for human pleasure, and meat was used as an image of avaricious human being. Based on these findings, his poetic messages were further materialized, which helped appreciating his poems from diverse perspective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정원호 / 鄭元皓 / Jung, Won-Ho		
	소 속	동의과학대학교 국제관광계열 관광중국어전공		
	Em@il	whjung@dit.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1월 15일	심 사 일	2019년 02월 21일
	수 정 일	2019년 0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3월 22일